

‘전기車 사기’ 5명 구속·44명 입건…영광군수 소환 임박

■검·경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사기사건 수사 확대

지난 8일 찾은 영광군 대마면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활랑했다. 최근 165만 2000㎡부지에 달하는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식까지 열렸던 만큼 전기차 제작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밀집, 북적덜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장으로 채워졌어야 할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영광군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심 단지로 키워 나가겠다는 기대감을 찾기도 쉽지 않

었다.

영광군이 애초 대마 산단 일대에 전기차 생산 및 부품 제작업체 등 30개 업체를 유치해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거창한 구상도 형용어전 지 오래다. CT&T, AD모터스 등 전기차 업체들은 아예 투자를 포기했거나 미뤘다. 에코넥스의 경우 4개 공장을 세우고 500명을 채용, 연간 4000억원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는 커녕 3000명이 넘는

3730명에 687억 가로철펈

에코넥스 대표 등 조사

보조금 지급한 郡도 책임

희대의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영광 군수 소환 계획을 밝히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겠다는 향후 수사 계획을 내놓았다.

영광경찰은 10일, 전기자동차 업체인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687억원

대 투자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에코넥스사 대표 소모(68)씨와 자회사인 ㈜EDD컴퍼니 대표 최모(5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 회사 영업부장 및 영업이사 등 관계자 4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기차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비상장 주식을 사두면 상장 시 수십 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

을 꾀어 비상장 주식을 한 주당 1000~3000원씩, 모두 3730명에게 68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또 주식 판매액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영업이사급 이상 임원들 중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10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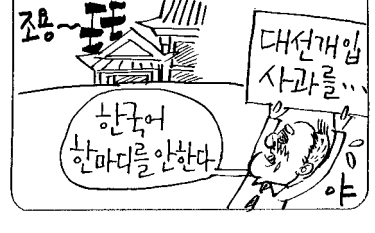
경찰은 아울러 영광 군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광군수 등이 지난 2011년 에코넥스사와 투자협약을 맺기 직전 네덜란드 전기차 회사를 방문한 만큼

기술 보유·이전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이 당시 이들 사함을 치밀하게 확인했다면 대규모 투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입주 기업 선정 과정과 영광군이 지급한 보조금(11억3800만원)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상 문제를 가려야 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책임자인 영광군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원칩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추돌 부상입혀

무안경찰은 10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일 밤 10시30분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희대기 중이던 A(3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남의 차 타려다... 취객이 주먹질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의 승용차에 타려고 한 40대 취객이 이를 항의하던 차량 주인을 때려 경찰서행.

○...10일 광주 관산경찰에 따르면, 김모(44)씨는 9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관산구 장덕동 A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다른 김모(42)씨 차량의 뒷문을 열고 차에 타려다 운전자 김씨가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차가 있길래 집에 가기 위해 타려고 했다”며 술에 취해 흥분수술.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연탄 한 장의 사랑

지난 9일 오전 화순고등학교 RCY학생들이 광주 동구 소재동의 한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30일까지 광주 29세대, 전남 60세대의 취약계층에게 세대당 200장씩 총 1만9000여장의 연탄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결혼식 갔다...일가족 교통사고 참변

9일 화순 쌍봉삼거리 3중 충돌... 5명 숨지고 2명 부상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 5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10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20분께 화순군 이양면 국도 29호선 쌍봉삼거리 인근에서 장모(55)씨가 몰던 25cc 시멘트 운반 차량과 김모(34)씨의 사설 구급차, 그리고 정모(45)씨가 몰던 쏘울 승용차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쏘울 승용차와 불타,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정씨와 부인 장모(39)씨, 11살과 9살짜리 초등학생 아들과 5살 난 아들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은 고흥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뒤 귀갓길에 참변을 당했다. 사설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 등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순에서 광주 방면으로 가

던 정씨의 쏘울 승용차와 마주 오던 김씨의 구급차, 장씨의 특장차가 잇따라 충돌한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쏘울 승용차가 마주 오던 구급차와 1차로 충돌한 뒤, 구급차를 뒤따라 오던 특장차와 부딪혔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쏘울 승용차 뒷부분

교통사고·화재...사고 많았던 주말·휴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1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모(21)씨가 몰던 아반테 승용차가 주차된 25t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와 이씨 등 2명이 숨지고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5시50분께엔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마을 앞 도로에서 이모(51)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임모(여·72)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임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빗길 운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임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40분께엔 광주시 광산구 송촌동 평동고 인근 도로에서 김모(60)씨의 1t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진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지난 8일 낮 12시10분께엔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한 양계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막길에 주차된 정모(43)씨의 8t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옆에서 일을 보던 운전자 정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깔려 사망했다.

화재도 잇따랐다. 지난 9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A 간판제작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내부면적 900㎡ 중 33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7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진화되는 등 주말·휴일 모두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안철수 예비후보 지지 호소 50대...향소심서 벌금형

제18대 대선 기간 중 안철수 예비후보 팬클럽 콘서트에서 안 후보 지지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향소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1)씨에 대한 향소심에서 선고유예(벌금 15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운

동기간 전에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1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인터넷 TV 등을 통해 행사가 생중계돼 선거운동으로서의 효과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적절 이성관계로 해임...40대 여성 공무원 패소

40대 여성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어 오다 해임처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근 전남 모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A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

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체 감사에서 불륜관계와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이 드러나 올해 1월 해임처분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열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백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백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수시 2차	정시
인문	신학과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7	5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과	4	5
	실용음악학과	-	5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콘텐츠, 실용음악이론 등)		
총계		31	39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2차모집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전형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전형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대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원음이 있는 대학·원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조로 36

www.kwangshin.ac.kr